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등재 과정과 현황*

한 태 문**

| 목 차 |

- I. 머리말
- II.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등재 과정
- III.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현황과 특징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글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새롭게 등재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17~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의 등재 과정, 자료의 현황과 특징을 재조명한 것이다.

첫째, 등재과정을 살폈다. 등재 과정은 공동 등재 추진을 합의한 2014년 3월 4일 이전과 이후의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합의 이전에는 학계의 연구와 민간단체의 선양활동 및 심포지엄을 통한 등재 가능성 점검이, 합의 이후에는 양국 공동학술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상 자료의 선정부터 신청서 제출 및 홍보가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 이 과정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hantm@pusan.ac.kr

둘째, 자료의 현황과 특징을 살폈다. ‘외교 기록’(5건 51점)·‘여정의 기록’(65건 136점)·‘문화교류의 기록’(41건 146점)으로 분류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전쟁을 겪은 조일 양국이 ‘通信’으로 대표되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솔한 정감을 나누고 관심사를 주고 받은 ‘誠信交隣’의 결과물이었다. 나아가 조선통신사를 통한 상호 교류가 교류 당사자인 개인 상호간의 신뢰와 우의는 물론 양국의 우호 관계 구축과 문화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양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증명된 평화적·지적 유산으로, 항구적인 평화공존 관계와 이문화 존중을 지향해야 할 인류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재 과정, 외교기록, 여정의 기록, 문화교류의 기록

I. 머리말

유네스코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크게 ‘세계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으로 나누어 등록·보존하는 사업을 펼쳐 왔다. 그 가운데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 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기준은 유산의 진정성, 독창성과 대체불가능성, 세계적 중요성이며, 희귀성과 완전성 그리고 보존 및 관리계획도 보조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¹⁾

2014년 3월 4일, 부산에서 한국의 부산문화재단과 일본의 NPO 법인

1)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유네스코 등재유산’ 항목을 참조.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이하 ‘연지연’으로 약칭)는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 추진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6년 3월 30일, 총 111건 333점의 자료를 등재 대상으로 확정된 뒤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 17세기~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이하 ‘조선통신사 기록물’로 약칭)라는 타이틀로 유네스코 사무국에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 결과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2016년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산하 등재심사소위원회의 사전심사(2016), 제13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2017년 10월 24~27일)의 최종심사 및 등재권고를 거쳐 2017년 10월 30일(현지시간) 최종적으로 등재가 결정되었다.²⁾

등재 이후 조선통신사에 대한 다양한 기념사업이 한일 양국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정작 조선통신사 기록물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2017년 11월 3일 한일문화교류기금과 동북아문화재단이 개최한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 문화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조선통신사 기록물에 대한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이다.³⁾

하지만 이마저도 일관된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살핀 것이 아니어서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현황과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

2) 2016~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유산은 신청접수 번호 ‘2016-15’인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비롯하여 한국의 <조선왕실 御寶와 御冊>(2016-71)·<국채보상운동 기록물>(2016-72), 일본의 <上野三碑>(2016-53) 등을 포함한 총 78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네스코 홈페이지(<https://en.unesco.org>)의 2017년 10월 30일자 뉴스를 참조.

3) 발표자로 참여하였던 필자는 발표내용을 토대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소재 시·서 연구』를 『배달말』 61집(배달말학회, 2017, 299-331쪽)에 수록하였다. 이후 국제학술회의의 발표와 토론의 전체 내용은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 문화유산’ 등재』(한일문화교류기금 편, 경인문화사, 2018)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가 따른다. 게다가 한일 공동 등재라는 험난한 노정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재 목록의 선정과 신청서 작성 등 등재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⁴⁾ 따라서 백서나 도록이 발간되지 않은 채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등재과정, 자료의 현황과 특징 등을 재조명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동안 한국측 추진위원·실행위원·학술위원의 자격으로 공동 등재 사업의 협의 과정에서부터 신청서 작성 및 등재 후 기자회견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였다. 따라서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기에 신청서와 자료카드를 바탕으로 개략적이거나 등재 과정 및 자료의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등재 과정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물이 댓돌을 뚫는다.’는 말이 있듯,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양국 두 민간단체가 오래토록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협력한 노력의 산물이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등재 과정은 크게 양국의 두 민간단체가 등재추진을 공식적으로 합의한 2014년 3월 4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4) 다만 영상의 경우 한국은 KBS TV에서 신청서 제출을 기념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 특집 조선통신사>(2017.3.14)를 방영했고, 일본은 NHK TV에서 등재를 기념하는 <平和の使節を“世界の記憶”に、朝鮮通信使登録への道>(2018.1.21)를 방영하였다. 출판물로는 최근 심규선이 2015년 12월 8일 부산의 누리마루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 추진경과보고회’ 자료집의 내용을 재정리하고 이후 활동을 추가 조사한 뒤 등재의 경위를 『심규선 기자가 전하는 조선통신사, 한국 속 오늘』(월인, 2017, 225~252쪽)에 수록한 바 있다.

1. 등재 추진 합의 이전의 활동

조선통신사 또는 조선통신사 기록물에 대한 관심은 학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 1910년 辻善之助의 『徳川時代初期に於ける日韓の關係』와 藤田明의 『江戸時代に於ける朝鮮使節來朝について』(『歴史地理 朝鮮號』)로부터 촉발된 연구가 현재까지 약 450여 편의 성과물로 나타났다.⁵⁾ 한국은 1931년 김태준이 『조선한문학사』에서 신유한의 『해유록』을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쌍벽을 이룬다고⁶⁾ 평가한 이후 1985년 소재영·김태준의 『여행과 체험의 문학·일본편』(민족문화문고간행회)을 기점으로 특히 문학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최근에는 일본 사찰 소장 ‘유물도록’에서부터 ‘사행록 연구총서’, ‘필담창화집 번역총서’, 사행로를 되밟은 ‘답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가 축적되었다.⁷⁾ 이들 연구성과는 등재 대상 목록을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한편, 조선통신사를 대중에게 알리고 선양하는 활동도 함께 펼쳐졌다. 일본의 경우 在日韓人 사학자 신기수가 50분짜리 기록영화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1979)를 만들어 일본 전역에 널리 알렸다. 그 결과 對馬島에서는 1980년 영화에 감명받은 庄野晃三朗을 중심으로 지역의 전통축제인 ‘港まつり’에서 ‘李朝通信使行列’이란 이름으로 조선통신사 행렬이 처음 재현되었고⁸⁾, 1983년에는 일본어사전인 『廣辭苑』에 ‘조선

5) 이와가타 히사히코, 『조선통신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지역과 역사』 38, 2016, 114쪽.

6) 김태준, 『조선한문학사』, 조선어문학회, 1931, 171쪽.

7)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쇼코쿠지 지쇼인 소장 조선통신사 유물도록』,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2008. 조규익·정영문 편,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학고방, 2008. 허경진 외 『조선후기 통신사 필담창화집 번역총서』, 보고서, 2013.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편,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1~3, 한울, 2007. 한태문, 『조선통신사의 길에서 오늘을 묻다』, 경진, 2012.

8) 村上和弘, 『對馬・嚴原「通信使行列」パレード; その誕生と変容』, 『2018 조선통신사

통신사'란 단어가 처음으로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또 松原一征이 일본 국내 조선통신사 연고지의 지자체·연구자·행사관계자를 아울러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를 설립(1995)한 뒤 2005년에는 '연구부회'도 만들어 조선통신사 선양에 앞장섰다.

한국에서는 對馬島의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에 감명을 받은 부경대학교 강남주 총장을 중심으로 2001년 '조선통신사행렬재현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부산바다축제(8.1)에서 처음으로 행렬이 재현되었다. 이후 '조선통신사행렬재현위원회' 발족(2002.3.13),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 창립(2003.3.7)을 거쳐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2005.3.22)가 발족되어 본격적인 조선통신사 선양사업이 펼쳐졌다. 그 결과 '조선통신사학회' 창립(2005.6.17), '조선통신사 역사관' 개관(2011.4.21) 등이 이루어졌고, 2010년에는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가 '(재)부산문화재단'으로 편입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선양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본격적인 논의는 부산문화재단이 2012년 5월 5일 연지연 부산대회 겸 조선통신사축제 환영만찬회에서 공동 등재추진을 제안하면서부터이다.⁹⁾ 이후 부산(2012.10.19)과 히로시마(2013.2.24)에서 등재 관련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¹⁰⁾ 가능성을 점검한 두 민간단체는 2013년부터 등재 추진

학회 춘계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8, 24쪽.

- 9) 이보다 앞서 조선통신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건축학회·한국건축사학회·일본ICOMOS국내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조선통신사의 길展' 한일심포지엄(2008.1.12)이 도쿄 일본건축학회 건축박물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필자도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문화교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 10)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에스토니아 유네스코위원회 부총장 Margit Siim의 『발틱웨이 기록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과정과 내용 및 발트 3국간 국제협력과 추진체계』를 비롯한 6명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그 내용은 『조선통신사연구』15호(조선통신사학회, 2012)에 수록되었다. 히로시마현립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필자의 강연과 함께 부산문화재단 차재근 문예진흥실장의

을 위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부산문화재단은 연지연과의 업무협약(2.19)를 시작으로 외교부(4.4~6)와 문화재청(8.29)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연지연도 문부성과 외무성을 방문해 정부요망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공유한 뒤(6.12) 일본 소장 등재 대상 자료의 DB 작업(7·8월)을 진행하면서 등재사업을 전담할 ‘전문부회’를 설치(11.2)하였다.

당시에는 양국의 첫 공동 등재인 데다 막대한 인력·시간·경비가 소요되는 등재사업의 성격상 두 민간단체가 일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당초 두 단체는 민간 차원에서 등재 분위기만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양국의 외교관계 악화가 발목을 잡아 정부 차원의 등재 추진사업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양국의 두 민간단체는 예상되는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2014년 3월 4일 부산에서 마침내 민간 차원에서 공동등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 등재 추진 합의 이후의 활동

두 민간단체는 곧장 등재 사업을 이끌어갈 ‘추진위원회’와 ‘학술위원회’의 구성에 들어갔다. 한국에서는 2014년 6월 1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추진위원 38명, 실행위원 15명, 학술위원 11명이 참석한 ‘유네스코 공동등재 한국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¹¹⁾ 일본도名古屋市를 비롯한 13개市, 4개縣 등 지자체와 長浜의 ‘芳洲會’를 비롯한 3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록유산 일본추진부회’(2014.

기조발표 『조선통신사 길의 세계유산화』에 대한 5명 패널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11) 발족식에서는 정재정 추진위원이 『유네스코 등재 과정 및 국내 등록현황』을, 허경진 학술위원이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등재의 범위』를 강연하였다.

5.21)와 6명의 학술위원으로 구성된 ‘학술위원회’(6.23)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일 공동추진위원회 회의’(8.25)가 일본 下關市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양국의 추진위원회·학술위원회·사무국 소속 위원들의 상견례를 겸해 실시한 것으로, ‘기억’과 ‘기록’의 사용 구분, 등록시 정식 명칭, 사행 횟수 등 통일해야 할 사항의 확인, 양측 학술위원회의 기본 컨셉, 한일대표자회의의 설치, 이후의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이후 ‘추진위원회’·‘대표자’·‘학술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개최된 양국 공동회의는 다음과 같다.

<표 1> 한일 공동 회의 현황

일시	회의명	장소	일시	회의명	장소
2014.08.25	1차 한일 공동 추진위원회의	下關	2015.08.24	6차 한일 공동 학술위원회의	下關
2014.09.16	1차 한일 대표자회의	福岡	2015.10.02	7차 한일 공동 학술위원회의	부산
2014.12.20	1차 한일 공동 학술위원회의	부산	2015.11.07	8차 한일 공동 학술위원회의	大阪
2015.01.31	2차 한일 대표자 회의 및 한일 공동학술위원회의	長崎	2015.12.02	9차 한일 공동 학술위원회의	부산
2015.03.06	3차 한일 공동 학술위원회의	下關	2015.12.08	10차 한일 공동 학술위원회의	부산
2015.04.03	4차 한일 공동 학술위원회의	부산	2016.01.12	11차 한일 공동 학술위원회의	福岡
2015.05.01	2차 한일 공동 추진위원회의	부산	2016.01.29	3차 한일 공동 추진위원회의 및 신청서 조인식	對馬島
2015.07.09	3차 한일 대표자회의 및 5차 한일 공동학술위원회의	福岡	2016.03.04	12차 한일 공동 학술위원회의	福岡

<표 1>에서 보듯 두 민간단체는 양국을 오가며 등재 합의로부터 등재 신청 전까지 각각 3차례의 추진위원회와 대표자회의, 12차례의 학술 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통신사 관련 전문연구자로 구성된 공동학술위원회는 등재 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사실상 사업의 중심 역할을 맡았다. 공동학술위원회의 활동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용어의 통일과 등재 범위 및 시행연도 표기

먼저 공동 작업의 특성상 각종 용어의 통일이나 정리가 필요했다. 첫째는 사절의 명칭을 ‘조선통신사’와 ‘통신사’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였다. 이는 ‘조선통신사’란 용어가 일본에서 먼저 사용한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는¹²⁾ 한국내 비판을 의식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미 2005년 간행한 한일공동역사교과서의 이름도 『조선통신사』(한길사)였고, 오늘날 한국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대사를 ‘일본대사’라 하지 않고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로 부르는 점, 또 신기수·강재언·이진희 등으로 대표되는 재일사학자들이 ‘조선통신사’를 통해 일본내 在日韓人の 민족의식을 양양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통신사’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양국민 모두에게 익숙할 정도로 브랜드화된 이름을 두고 새로운 이름 때문에 굳이 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그리고 영문표기는 ‘Joseon Tongsinsha/Chosen Tsushinshi’로 양국의 발음표기대로 나란히 쓰기로 했다.

둘째는 ‘Memory of the World’의 번역을 ‘세계기록유산’(한국)과 ‘세계기억유산’(일본) 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였다. ‘기록’과 ‘기억’은 합

12) 명칭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하우봉(<나의 의견>, 《동아일보》, 1992년 5월 22일자 15면)은 최근 외교사절단의 이름을 붙일 때 파견대상국보다 주체를 기준으로 하기에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서양 학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당혹스럽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 심규선, 앞의 책, 43쪽 참조.

의하는 바가 분명 차이가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할 등재 신청서는 결국 영어로 작성되므로 내용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 한국은 ‘기록’으로 일본은 ‘기억’으로 각국어로 된 신청서에만 반영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세계기록유산’이란 이름으로 ‘훈민정음’(1997)을 비롯해 13건을, 일본도 ‘세계기억유산’이란 이름으로 ‘山本作兵衛 炭坑기록화 및 기록문서’(2011)를 비롯해 4건을 등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¹³⁾

셋째는 등재의 범위였다. 조선통신사는 1428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파견되었지만,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통신사는 왜구의 단속 요청, 일본의 정세 탐지, 일본국왕사의 피로인 쇄환에 대한 회례, 대장경 증정 등이 주임무였다. 게다가 사절단에 대한 안전보장마저 위협을 받을 정도였던 데다 양국에 남아 있는 기록자료들도 그리 많지 않다. 무신통신사(1428) 박서생이 귀국한 뒤 세종에게 복명한 내용을 담은 『조선왕조실록』도¹⁴⁾ 이미 1997년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중복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조선전기에 비해 기록자료도 풍부하고 비참한 전쟁을 경험한 양국이 교류를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적인 관계 구축과 유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의 기여’를 지향하는 유네스코의 정신에도 부합한 조선후기 통신사의 기록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넷째는 사행연도의 표기문제였다. 예를 들어 조엄이 정사로 참여한 사행은 1763년 8월 3일에 서울을 출발한 뒤, 對馬島(10.6)·大坂(1764.

13) 이밖의 등재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①한국측: ‘불조직지심체요질’·‘승정원일기’(2001),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조선왕조의례’(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5·18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난중일기’·‘새마을운동 기록물’(2013), ‘한국의 유교책판’·‘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 ②일본측: ‘御堂關白記’(2013), ‘慶長遣歐使節 관계자료’(2013), ‘舞鶴への生還, 1945~1956シベリア抑留等日本人の本國への引き揚げの記録’·‘東寺百合文書’(2015).

14) 『세종실록』, 권46, 세종11(1429)년 12월 3일, 通信使朴瑞生 具可行事件以啓.

1.20) ·京都(1.28)를 거쳐 2월 16일에 江戸에 도착하였다. 이를 두고 그 동안 한국은 국내에서 출발한 시점인 1763년을 사행연도로, 일본은 사행이 江戸에서 국서를 전달한 시점인 1764년을 사행연도로 표기해 왔다. 논의의 결과 각각의 입장을 모두 존중해 출발과 국서전달의 연도가 다를 경우 ‘1763~1764’로 표기하기로 합의하였다.

2) 등재 대상 자료의 선정 기준

다음으로 공동 학술위원회는 앞서 밝힌 유네스코가 제시한 세계기록유산의 등재기준을 바탕으로 각국에 소장된 등재 대상 자료의 선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¹⁵⁾

첫째, 원칙적으로 유네스코가 제시한 ‘보존 및 관리 기준’에 문제가 있는 개인 소장 자료는 제외하였다. 일본은 국가·縣·市·町 등이 이미 지정한 문화재이거나 박물관·자료관·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조선통신사 관련 대표적인 사찰이나 신사 등에서 보관·관리하는 자료들 가운데 학술위원이 직접 확인한 것을 선정했다. 다만 개인 소장 자료의 경우 출처·작자 등이 분명하고 ‘보존 및 관리’에 문제가 없고 소장자의 승낙을 받은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대상 자료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한국은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사편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소장 자료 가운데 이미 『朝鮮時代通信使』(국립중앙박물관, 1986)·『朝鮮通信使大系』(明石書店, 1996)를 비롯한 각종 도록과 연구서 등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은 대표적인 자료들을 대상 목록에 올렸다.

둘째, 필사본과 상업용으로 간행된 필담창화집은 제외하였다. 조선통신사를 통한 양국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기록물은 일본에 산재한 수많은

15) 이 부분은 한태문,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소재 시·서 연구』, 『배달말』 61, 2017, 316~317쪽의 내용을 수정·재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은 『필담창화집』이다. 조선통신사의 왕복노정은 곧 ‘필담창화’와의 동행이었는데, 이는 ‘사절이 내빙할 때마다 반드시 필담창화가 있었다.’¹⁶⁾ 일본측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게다가 당시 일본은 목판본에 의한 상업출판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한 소통의 결과물 가운데 상당수가 상업적으로 출판되어 일본 지식인의 관심을 끌었다.¹⁷⁾ 이들 필담창화집이 양국 문화교류의 실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물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량 출판에 의한 유포라는 상업출판의 속성상 ‘대체불가능한 유일한 진품이어야 한다.’며 유일성을 강조하는 유네스코의 등재기준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원본이자 유일본인 詩箋이나 詩軸으로 된 필담창화 자료들만 대상 목록에 올랐다.

3) 등재 목록의 확정 및 소장처 방문을 통한 조사와 업무협약

등재 대상 목록의 선정작업은 1차에서부터 11차 회의까지 지속될 정도로 사실상 공동학술위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임무였다. 먼저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크게 ‘외교기록’·‘여정의 기록’·‘문화교류의 기록’으로 나누는데 합의한 각국 학술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등재기준은 물론 자국의 세부기준에도 적합한 자료들을 선별·정리하였다. 정리된 결과는 공동학술회의에서 서로 점검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쟁점이 된 것은 일본측이 제시한 ‘朝鮮國書’와 ‘宗義智의 초상화’였다.

먼저 ‘조선국서’는 조선의 국왕이 일본의 關白에게 보낸 것으로 총 3권 19점이었다. 한국측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1607·1617년 사행의 국

16) 林焯, 『通航一覽』 권108, 朝鮮國部 84, 『筆談唱和等』, 慶長以來 朝鮮國使のとき 江戸旅館本誓寺をはじめ 凡その 往還經過の所所において 筆談唱和あり.

17) 허경진, 『통신사 필담창화집 문화연구』, 보고서, 2011, 78쪽.

서가 對馬藩이 조선의 국서를 위조한 후 바꿔치기한 僞書이고, 한국에는 일본 關白의 실물 국서가 남아 있지 않기에 ‘조공사절’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처음에는 반대하였다. 하지만 비록 僞書이지만 이를 통해 이후 양국의 선린외교가 구축되었기에 그 자체가 엄연한 양국 외교사의 한 부분인 데다, 비록 실물은 없지만 조선의 『通信使謄錄』이나 각종 ‘使行錄’에 關白의 회답서가 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상 자료에 포함하였다.

반면, ‘宗義智 초상화’(對馬島 萬松院 소장)는 논의 결과 제외되었다. 일본측은 宗義智가 對馬藩의 초대 藩主로 임란 이후 조선과의 강화교섭에 나서 평화 구축에 기여했다는 점을 선정 사유로 밝혔다. 하지만 한국측은 宗義智가 임진왜란 당시 小西行長이 이끄는 1군의 선봉에 선 인물로 ‘선린평화의 길’을 ‘침략의 길’로 바꾸어버린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물론 2015년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의 아픔이 담긴 군함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채 明治시대 산업혁명의 상징성만을 부각시켜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이란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결과 한국민의 公憤을 산 점도 고려되었다. 한편, 한국측 목록에 일본의 關白이 조선 국왕에게 선물한 <牧丹圖 屏風>(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을 비롯한 병풍이 누락된 것을 일본측이 발견하여 보완하기도 했다.

한편, 각국의 학술위원회는 등재 목록의 선정 작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동시에 각각 등재 대상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 자료에 대한 확인 및 보관상태 등을 살폈다. 한국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으로 약칭)을 두 차례(2014.8.12. / 2015.1.19~20)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국사편찬위원회(8.12), 부산박물관(2015.1.29), 국립고궁박물관·고려대 도서관·충남 역사박물관(6.9~10), 국립해양박물관(12.21) 등을 차례로 방문해 원본

자료를 확인·조사하고 업무협의를 약속받았다. 일본도 京都대학 도서관(2015.4.10)을 시작으로 고려미술관(7.14), 壹岐市(9.4), 東京국립 박물관(10.20) 등을 방문하여 원본 자료의 확인 및 업무협의를 약속받았다.

또한 이미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킨 경험이 있는 양국의 기관을 찾아 등재 신청과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고 등재신청서 등을 얻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2011년에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킨 ‘5.18기념재단’을 방문(2015.1.27)하였고, 일본에서는 2015년에 『舞鶴로의 생환-1945~1956년 시베리아 억류 등 일본인의 본국 송환의 기록』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킨 京都 舞鶴引揚記念館을 방문(2015.1.15)하였다.

4)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2015년 4월 3일, 등재 목록을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소장처와 등재 경험이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 확인 및 신청서 등 참고자료를 확보한 공동학술위원회는 바로 신청서 작성에 들어갔다. 신청서 작성시 가장 먼저 작업을 시작한 것은 <개요> 부분이다. <개요>는 형식상 신청서의 맨 앞에 놓이기 때문에 심사를 맡은 유네스코 전문위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영문 200 단어 이내’라는 제한사항이 있어 260년간에 걸친 조선통신사 기록의 시대적 배경이나 현대적 의미를 압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그야말로 힘든 작업이었다.¹⁸⁾

게다가 <개요> 작성 초기부터 일본이 제시한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국에 出兵한 이후”라는 표현을 두고 ‘出兵’으로 표현할

18) 仲尾 宏·町田一仁 편, 『ユネスコ世界記録遺産と朝鮮通信使』, 明石書店, 2017, 16쪽.

것인가, ‘침략’으로 표현할 것인가로 논쟁이 일어났다. 일본측은 ‘出兵’이 일본에서는 ‘침략’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영문번역시 결국 ‘Invasion’으로 표기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측은 ‘출병’이 “군대를 싸움터로 내보내는 일”로 “정당한 이유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는 일”의 뜻을 지닌 ‘침략’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기에 ‘침략’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측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일본측의 올바른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영문은 물론 일본의 신청서에 ‘침략’으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일본측이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침략’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각국 학술위원회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신청서와 별도로 보조 증빙자료로 활용될 등재 대상 목록에 오른 자료들에 대한 ‘자료카드’ 작성에 들어갔다. 7월 9일에는 신청서 작성 양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8차 한일 공동학술회의(2015.11.7)에서는 영문 번역을 일본이 맡고 한국이 감수를 맡은 후 영어권 한국학 관련 학자에게 재감수를 맡기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이후 각국 언어로 완성된 신청서에 대한 최종 점검(2016.3.4)과 영문신청서에 대한 최종점검(3.25)까지 마친 공동학술회의는 이를 사무국으로 넘겼다. 그 결과 공동 등재를 합의한 후 약 2년 만인 2016년 3월 30일, 양국 사무국장은 부산우체국에서 <표 2>와 같은 등재 목록이 포함된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로 우편접수를 할 수 있었다.

<표 2>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등재 자료의 현황

구분	외교기록	여정의 기록	문화교류의 기록	계
한국	2건 32점	38건 67점	23건 25점	63건 124점
일본	3건 19점	27건 69점	18건 121점	48건 209점
총계	5건 51점	65건 136점	41건 146점	111건 333점

5) 신청서 제출 및 등재 이후의 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양국의 대표 학술위원들은 추진위원들과 함께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 홍보사업(2016.11.14.~18)에 참여하였다. 11월 14일,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기원 <조선통신사 한지인형 전시회>’를 시작으로¹⁹⁾ 15일에는 파리 일본문화회관에서 ‘조선통신사 세미나’를, 16일에는 유네스코 사무국을 방문하여 양국 국회의원들의 추천서를 제출하고 협력을 요청하였다.

2017년 4월 10일에는 유네스코 사무국으로부터 ‘①문화교류에 관한 정치적 배경, ②조선통신사를 파견하면서 유지하는 과정에서 특히 필요했던 요인과 그 현황, ③일반적인 국가 간 상호교류에 관한 더 많은 정보’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양국은 4월 18일 긴급 한일공동회의(부산)를 열어 요청 내용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영문답변서를 사무국에 제출(5.2)하였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10월 31일(한국시간), 마침내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등재가 확정되자 부산과 對馬島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그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후 등재를 축하하는 공식적인 기념행사가 양국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부산에서는 한일공동등재를 기념하는 ‘기념전’(부산시청 1층 통로, 11.24~12.8)과 함께 25일에는 광복로 · BIFF 광장 ·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 등에서 ‘축하공연’이 베풀어졌고, 파크하얏트호텔에서는 ‘기념 패널 디스커션’이 개최되었다. 對馬島에서도 2018년 2월 25일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및 등재기념식’을 對馬島교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들 기념행사를 끝으로 공동 등재를 위한 양국의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19) 한지 인형은 한지공예품 제작 단체인 ‘소향화’에서 5년에 걸쳐 제작한 2,100여 점 가운데 ‘국서가마’ · ‘정사가마’ · ‘약사’ 등의 부분이 포함된 150여 점이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전시되었다.

Ⅲ.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현황과 특징

앞서 밝혔듯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크게 ‘Ⅰ.외교기록’, ‘Ⅱ.여정의 기록’, ‘Ⅲ.문화교류의 기록’ 등으로 나뉜다. 각각의 기록물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등재 목록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되 본문에 사용되는 ‘자료명(K. I-1)’은 “한국측 외교기록의 첫 번째 자료”라는 뜻을 밝혀 둔다.)

1. 외교기록

‘외교기록’은 조선과 일본의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공식기록과 외교 문서로, 한국의 『通信使臚錄』(K. I-1)과 『邊例集要』(K. I-2), 일본의 『朝鮮國書』(J. I-1·3)와 『正徳元年朝鮮通信使進物目錄毛利吉元宛』(J. I-2)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신사등록』은 조선에서 일본 관계 업무를 주관하고 있던 예조가 1641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통신사와 관련하여 다른 官衙와 주고받은 공문서를 옮겨 적어²⁰⁾ 유형별로 묶은 것이다. 일본의 파견 요청, 국왕의 명령과 조정의 논의, 파견 후 사행단의 보고 내용, 일본의 국서와 서계, 예물목록 등 조선통신사 왕래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작성된 모든 공문서를 담고 있다.

『변례집요』는 조선의 예조가 1598년부터 1841년까지 약 250여 년에 걸친 조선과 일본 간의 실질적인 외교교섭 활동을 각종 등록이나 장계 등을 근거로 모두 30여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한 것이다. 각 항목의 사실은 해당하는 주제와 관련된 문서를 참고로 하여 연대순으로 요약,

20) 정성일, 『외교기록에 대하여』,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 문화유산’ 등재』, 경인문화사, 2018, 40쪽.

정리하고 있다. 내용은 일본과의 사신 내왕, 무역관계, 표류인 송환, 제반 규정 등으로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교섭 경위가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있다.²¹⁾

『조선국서』는 조선 국왕이 德川將軍 앞으로 보낸 ‘국서’와 예물목록인 ‘別幅’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국서와 별폭이 함께 있지만, 국서만 있거나(1711년) 별폭만 있는 것(1682·1811)도 있고, 1624·1636년 사행처럼 국서자료가 없는 것도 있다. 특히 1607년·1617년 국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對馬藩이 개작한 僞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서 역할을 하여 단절된 국교를 재개시켰다는 독특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正德元年朝鮮通信使進物目錄毛利吉元宛』은 1711년 11월에 조선통신사가 후한 대접을 해준 長州藩主 毛利吉元에게 선물한 예물의 목록이다. 사행에 대한 長州藩의 후대는 사행원들이 몇 백 칸이나 되는 숙소와 연회상은 물론이고 음식과 그릇에 이르기까지 그 사치와 화려함에 놀라거나, 對馬藩主가 “長州藩 下關이 제공한 접대가 최고였다.”며 關白에게 보고한 데서 알 수 있다. 인삼을 제외한 현품과 그 목록을 담은 별폭이 함께 존재하여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희소가치가 있는 자료이다.²²⁾

이들 외교기록들은 선린우호의 구축과 지속을 희구하는 양국 정치권력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通信’의 원칙·방법·실천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통신사를 통한 양국 외교관계에 대한 1차 사료로서 그 의의가 있다.

21) 하우봉, 『해제』, 『신편 국역 예조 전책사 번례집요』, 한국학술정보, 2006, 3~30쪽.

22) 1711년 사행 때 長州藩은 4,529명의 인원, 803척의 배를 동원하고 七五三膳을 비롯한 호화로운 요리를 대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김현문, 『동사록』, 8월 29일의 기록과 仲尾宏·町田一仁의 앞의 책, 63~68쪽을 참조.

2. 여정의 기록

‘여정의 기록’은 조선통신사가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부터 일본의 江戸까지 왕복 4,500km에 이르는 노정을 오가는 동안, 양국에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남긴 기록을 총칭한다. 크게 ‘通信使行錄’, 일본 각藩의 ‘響應기록’, 조선통신사를 소재로 삼은 ‘기록화’와 ‘감상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통신사행록

‘통신사행록’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오가면서 생긴 일들과 견문을 일기와 시 등 다양한 문학 형식을 빌어 구체적으로 기록한 기록물로 양국 외교체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교린체제의 성격을 중심으로 크게 ‘모색기’(1607~1624년), ‘확립기’(1636~1655년), ‘안정기’(1682~1763년), ‘와해기’(1811년)의 사행록으로 나눌 수 있다.²³⁾

첫째, 교린체제 모색기의 사행록은 일본 장군의 국서에 회답하고 일본에 억류된 조선 被擄人들을 쇄환하기 위해 ‘回答兼刷還使’라는 이름으로 파견된 초기 3차례의 사행(1607·1617·1624)을 기록한 것이다. 1607년 사행록은 부사 慶暹이 기록한 『慶七松海槎錄』(K. II-1), 1617년 사행록은 정사 오윤겸의 『吳秋灘東槎上日記』(K. II-2), 부사 박재의 『東槎日記』(K. II-4), 종사관 이경직의 『李石門扶桑錄』(K. II-3), 1624년 사행록은 부사 강홍중의 『姜弘重東槎錄』(K. II-5) 등이 있다.

이들 사행록은 ‘회답겸쇄환사’의 명칭에 걸맞게 조선인 피로인들의 쇄환을 위한 사신들의 노력과 함께 피로인 및 일본인의 대응 양상 등 입란 이후 외교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서술양식에 있어 시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일기’와 ‘문견록’과 같은

23)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41쪽.

산문의 활용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둘째, 교린체제 회복기의 사행록은 ‘쇄환사’로 대표되는 모색의 단계를 벗어나 임란 이전처럼 ‘통신사’란 명칭을 다시 회복한 1636년 사행으로부터 1643·1655년의 통신사행을 기록한 것이다. 1636년 사행록은 정사 임광의 『任參判丙子日本日記』(K. II-6), 부사 김세렴이 일기와 시를 모아 각각 기록한 『金東溟海槎錄』(K. II-7)·『金東溟槎上錄』(K. II-8), 종사관 황호의 『黃漫浪東槎錄』(K. II-9) 등이 있고, 1643년 사행록은 부사 조경의 『趙龍洲東槎錄』과 종사관 신유의 『申竹堂海槎錄』(K. II-10), 작자 미상의 『癸未東槎日記』(K. II-11)가 있다. 그리고 1655년 사행록은 종사관 남용익이 일기와 시로 기록한 『南壺谷扶桑錄』(K. II-12)과 견문을 항목별로 정리한 『南壺谷聞見別錄』(K. II-13)이 있다.

이 시기 사행록은 예정에 없던 日光山 유람(1636)과 달리 이후 東照宮에 대한 공식적인 致祭(1643·1655)가 베풀어진 데서 알 수 있듯, 선린관계를 구축하려 애쓴 양국의 외교 노력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김동명사상록』처럼 시만을 따로 모은 독립된 형식의 사행록이나, 『남호곡문견별록』처럼 일기에 덧붙여 있던 ‘문견록’을 독립된 형태의 사행록으로 기술하는 등 서술 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셋째, 교린체제 안정기의 사행록은 일본 문사들과의 시문창화를 염두에 두고 製述官이 파견되는 등 ‘通信’에 걸맞은 문화교류가 이루어진 1682년 사행부터 1763년 사행까지의 기록이다.

1682년 사행록은 홍우재의 『洪譯士東槎錄』(K. II-14)과 김지남의 『金譯士東槎日錄』(K. II-15), 1719년 사행록은 제술관 신유한의 『申靑川海游錄』(K. II-16)과 군관 김흡의 『扶桑錄』(K. II-17), 1748년 사행록은 종사관 조명채의 『奉使日本時間見錄』(K. II-19)과 군관 홍경해의 『隨槎日錄』(K. II-18) 등이 있다. 또 1763년 사행록은 정사 조엄의 『趙

濟谷海槎日記』(K. II-20), 제술관 남옥의 『日觀記』(K. II-21) · 『日觀唱酬』(K. II-22) · 『日觀詩草』(K. II-23), 서기 성대중의 『日本錄』(K. II-24), 서기 원중거의 『乘槎錄』(K. II-25), 서기 김인겸의 『日東壯遊歌』(K. II-29), 군관 민혜수의 『槎錄』(K. II-26), 상통사 오대령의 『溟槎錄』(K. II-27), 선장 변탁의 『癸未隨槎錄』(K. II-28) 등이 있다.

이 시기 사행록은 三使 중심에서 벗어나 제술관 · 서기 · 역관 · 군관 · 선장 등 다양한 계층에 의해 산출되어 작자층의 저변 확대는 물론 직분에 따른 상황인식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또한 국문 사행가사가 등장하여 국문문학의 성장과 함께 일본에 대해 사행원들이 지니고 있던 편벽된 문화우월의식이 서서히 희석되고 있음도 보여준다. 다만 1711년 사행록으로 부사 임수간의 『東槎日記』와 군관 김현문의 『東槎錄』이 있지만, 양국에서 메일을 오가며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목록에서 누락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넷째, 교린체제 와해기의 사행록은 사행이 江戶가 아닌 對馬島에서 국서를 교환한 이른바 易地通信이 이루어진 1811년 사행의 기록이다. 정사 김이교의 『辛未通信日錄』(K. II-30), 서기 김선신의 『淸山島遊錄』(K. II-31), 군관 유상필의 『東槎錄』(K. II-32) 등이 있다. 이 시기 사행록은 견문 지역이 對馬島에 한정되고 일본 문사와의 교류가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필담장화의 모습이나 접대 상황 등 다양한 일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향응기록

‘향응기록’은 일본의 각 藩이 조선통신사를 위해 호화로운 세간살이로 꾸며진 客館을 마련한 뒤 향응과 식량의 제공 등 응접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자세히 기록한 공적 기록이다.²⁴⁾

24) 향응기록은 일본측 자료카드와 仲尾 宏 · 町田一仁의 앞의 책(116-117쪽)의 내용을

『朝鮮信使御記錄』(J. II-1)은 1711년 사행이 赤間關과 上關에 머물 때 이들을 응접한 長州藩의 기록으로 총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원된 인원과 선박 및 막부의 명령에 의한 응접 지시부터 접대가 완료될 때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적고 있고, 선착장과 객관의 도면도 첨부되어 있다. 『福岡藩朝鮮通信使記錄』(J. II-2)은 1763년 사행을 筑前 藍島에서 응접했던 福岡藩의 기록으로 『朝鮮人來聘記』 11권과 『朝鮮人歸國記』 4권 등 총 15권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사행은 藍島의 선착장을 앞두고 정사의 배가 표류하고 부사의 배마저 파손되는 바람에²⁵⁾ 12월 3일부터 26일까지 무려 23일을 체류하기도 했다.

『甲申韓人來聘記事』(J. II-3)는 1763년 사행이 名古屋를 방문했을 때 尾張藩의 접대를 藩士 松平君山이 기록한 것으로, 장군 집안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徳川御三家의 접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 『小倉藩朝鮮通信使對馬易地聘禮記錄』(J. II-4)은 1811년 역지빙례 때 일본측 正使로서 국서교환의 임무를 맡았던 小笠原忠固가 藩主로 있던 小倉藩의 기록이다.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통신사에 대한 일본측의 접대 상황을 알려주는 기록이란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3) 기록화

‘기록화’는 양국의 화가가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일들을 그림으로 기록한 것으로, 조선통신사 행렬, 노정 상의 현지 풍경, 조선통신사 관련 명소 등을 그린 그림으로 나눌 수 있다.

참조하였다.

- 25) 정사 조엄은 『해사일기』(12월 4일)에서 부사선에 실은 禮單封物이 물에 젖는 바람에 다시 빨아 별에 말리고 여행 밀친 가운데 소소한 것들을 주워 모았더니 “마치 도적맞은 집에도 남은 것이 있는 것 같았으나 상황은 격정스러웠다.”고 적고 있다.

① 조선통신사 행렬도

행렬도는 논픽션 기록화로 조선 화가가 그린 것과 일본 화가가 그린 것으로 나뉜다. 먼저 조선 화가가 그린 유일한 작품으로, 사행이 江戸城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仁祖十四年通信使入江戸城圖>(K. II-34)가 있다. 이는 1636년 사행 때의 작품으로 추정한다. 김윤식의 배관기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 1986년 조선통신사 특별전을 개최하며 붙인 제명이다. 하지만, 良醫와 제술관이 등장하고 화풍도 18세기 이후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 1719년 이후의 행렬도임을 알 수 있다.²⁶⁾

일본 화가의 작품으로는 1624년 사행 행렬을 그린 <仁祖二年通信使行列圖>(K. II-33)가 있다. 현존 행렬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행렬에 참가한 인원이 대폭 생략되고 복장과 인물의 표정이 도식적인 것이 특징이다. <肅宗三十七年通信使行列圖>(K. II-35)는 1711년 통신사 행렬을 그린 것으로, 道中·登城·귀로·귀국 등 전체 세트를 모두 갖춘 유일한 작품이자 일반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 이는 對馬島 화가 依喜左衛門이 막부의 응접담당 총책임자 土屋政直의 명을 받아 江戸에서 활동하는 町繪師를 동원하여 141일간에 걸쳐 제작한 것이다.²⁷⁾ 또 1748년 사행이 江戸城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延享五年朝鮮通信使登城行列圖>(J. II-10)와 1811년 사행 행렬을 그린 <朝鮮國信使繪卷>(J. II-12)이 있다. 전자는 행렬을 구경하던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린 것으로 감상과 소문, 정사의 인물평이 그림 곁에 기술되어 있고, 후자는 종사관도 없는 데다 수행원의 수도 훨씬 적게 그려져 역시통신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사행 연도는 불분명하

26) 홍선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통신사 기록물의 조선화』,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 문화유산 등재』, 경인문화사, 2018, 98~99쪽.

27) 홍선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의 1711년 조선통신사 행렬도』, 『조선시대 통신사 행렬』,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2005, 8쪽. 일본측 목록에 포함된 <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繪卷>(J. II-7)·<朝鮮信使參着歸路行列圖>(J. II-8)·<宗對馬守護行歸路行列圖>(J. II-7) 등이 당시 제작된 14벌 가운데 3벌이다.

지만 정교한 사실성과 세심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朝鮮國信使繪卷>(J. II-11)과 1682년 사행이 江戸城에 들어가는 장면을 그린 <天和度朝鮮通信使登城行列圖屏風>(J. II-13)이 있다.²⁸⁾

한편, 육로가 아닌 수로행렬을 그린 그림도 있다. 먼저 바닷길 노정 지역에 정박할 때의 그림으로 <朝鮮人來朝覺 備前御馳走船行列圖>(J. II-14)와 <朝鮮通信使上關來航圖>(J. II-15)가 있다. 전자는 1748년 사행이 瀨戶內海의 日比에 정박했을 때 지역의 서민화가가 망원경을 사용하여 그린 것이다.²⁹⁾ 바둑판, 씨름하는 이, 담배피는 이, 피리 부는 이 등 사행선 위에 펼쳐진 풍경과 함께 사행선을 본 군중들의 감탄과 대화가 유머러스하게 기록되어 있다. 후자는 1763년 사행시 6척의 조선통신사 선단이 長州藩의 호위를 받으며 上關에 입항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리고 大坂 하구에 도착한 사행이 일본측이 제공하는 川御座船을 타고 淀川을 거슬러 京都로 향하는 광경을 그린 것도 있다. 대체로 國書樓船을 중심으로 國書先導船과 三使船 및 附屬船을 그린 <國書樓船圖>(K. II-38) · <正徳度朝鮮通信使國書先導船圖屏風>(J. II-16)과 상상관이 탄 배와 부속선을 그린 <正徳度朝鮮通信使上官第三船圖同供船圖>(J. II-17), 앞 뒤로 樂士가 탄 배와 부속선을 그린 <朝鮮通信使御樓船圖屏風>(J. II-18) 등이 있다.

② 사행 관련 각종 기록화

사행 관련 기록화도 조선 화가가 그린 것과 일본 화가가 그린 것으로 나뉜다. 먼저 조선의 화가가 그린 것으로 <槎路勝區圖>(K. II-36)와 <倭

28) <東照社緣起(仮名本)>(J. III-14)는 어용화가 狩野探幽가 徳川家光의 명으로 1636년 사행이 日光東照社를 방문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후 東照社에 봉납되어 조선통신사와 徳川將軍家の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교류의 기록’에 포함되었지만, 아무래도 행렬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여정의 기록’에 배치함이 옳겠다.

29) 한태문, 「통신사 노정에 반영된 한일 문화교류의 한 양상」, 『열상고전연구』 23, 2006, 13~14쪽.

館圖>(K. II-37)가 있다. 전자는 1748년 화원 이성린이 조선통신사의 노정 지역 중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명소 30곳을 그린 것을 2권으로 묶은 것이다. 노정을 따라가며 마주한 각 지역의 실경을 산수화의 연작으로 상세히 묘사한 유일한 작품이다.³⁰⁾ 후자는 1763년 사행의 三騎船將 변박이 1783년에 그린 것이다. 양국 외교의 중심지인 초량왜관의 전경을 조감도 형식으로 그린 데다, 공간마다 이름을 적어 왜관의 구조와 건물의 위치를 자세하고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화가의 그림은 크게 사행단의 모습과 접대 음식 그리고 사행의 활약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朝鮮人物旗杖輜輿之圖>(J. II-19)와 <朝鮮人御饗應七五三膳部圖>(J. II-21)는 1811년 일본측 정사 小笠原忠固의 명으로 가신인 猪飼正이 기록화로 제작하여 막부에 바친 것이다. 전자는 형명기를 비롯한 조선통신사의 깃발과 의상·가마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설명을 붙인 것이고, 후자는 환영의식용 요리인 ‘七五三膳’을³¹⁾ 시험삼아 만들고 이를 그린 것으로 1811년 사행시 일본측의 관심과 접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通信使歡待圖屏風>(J. II-27)은 막부 어용화가 狩野益信이 1655년 사행의 江戸城 입장과 관백의 접견실에서 접대를 받는 성대한 의식을 그린 것이다.

또한 마상재의 활약상을 그린 <馬上才圖卷>(J. II-22)과 <馬上才圖>(J. II-23)가 있다. 1636년 사행부터 정식으로 사행에 참여한 마상재는 당시 일본의 각종 서화·서책·공예품·曲馬 등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다.³²⁾ 특히 후자는 1747년 사행이 江戸 對馬藩邸

30) 이현주,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등재대상 회화 연구』, 『조선통신사연구』 21, 2016, 79쪽.

31) 일본측의 목록에 오른 <七五三盛付繰出順之繪圖>(J. II-20)는 1763년 사행의 江戸城 방문시 관백이 향응한 ‘七五三膳’을 비롯한 과자와 술 등 제공된 요리의 순서 및 식재료·식기·장식물도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 국민인 조선통신사에 대한 구체적인 접대상황을 엿볼 수 있다.

32) 김동철, 『통신사 수행 마상재의 구성과 활동』, 『조선통신사연구』 3, 2006, 52~56쪽.

에서 예행연습을 한 것을 浮世繪 화가 2대 鳥居清信이 그린 것으로 마상재 공연 실황을 엿보는 것처럼 실감나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화가 英一蝶이 1711년 사행 때 말을 탄 小童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일본인이 건넌 종이에 휘호를 하는 장면을 그린 <朝鮮通信使小童圖>(J. II-25)도 있다.

③ 감상화

감상화는 실제 사행 당시에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조선통신사를 소재로 자신의 감상을 곁들여 그린 것으로, <琵琶湖圖>(J. II-24)와 <釜山浦富士圖>(J. II-26)가 있다. 전자는 1824년 화가 円山應震이 일본 최대의 호수이자 절경으로 유명한 비와호를 지나는 사행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그린 것으로, 사행을 회고하고 공적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진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막부의 어용화가 狩野典信이 부산포를 출발한 사행선 뱃머리에 선 2명의 인물이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富士山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처럼 ‘여정의 기록’은 조선통신사가 왕래한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함과 동시에 조선통신사에 대한 일본인의 대응 및 異文化에 대한 상호간의 동경을 잘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3. 문화교류의 기록

‘문화교류의 기록’은 조선통신사의 왕래를 통해 이루어진 조선과 일본의 문화교류에 대한 기록이다. 양국은 동일한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었기에 조선통신사를 통해 문학·학술·예능·기술문화·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번에 등재된 자료는 크게 시문과 서화의 교류로 나눌 수 있다.³³⁾

1) 詩文의 교류

조선통신사를 통한 문화교류의 중심은 시문창화와 필담이다. 이들은 보통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흔히 ‘필담창화’라고 부른다. 한문을 공용어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필담창화는 정감을 나누고 관심사를 확인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대립과 신경전을 수반하는 외교사행에서 긴장 완화와 함께 우호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조선전기부터 시문창작 능력과 학문적 능력을 사행원의 선발 요건으로 삼은 것³⁴⁾ 그 같은 효용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시문교류를 대표하는 등재자료는 크게 조선통신사가 일본인에게 준 것, 일본인이 조선통신사에게 준 것, 조선통신사와 일본인이 서로 주고 받은 것으로 나뉜다.

첫째, 조선통신사가 일본인에게 증여한 시문 증여의 대상이 大名인 경우는 對馬藩主에게 준 <金世濂等筆跡>(K. III-1) · <李明彦筆跡>(K. III-3)와 名古屋藩主에게 준 <朝鮮國三使口占聯句>(J. III-18)이 있다. <金世濂等筆跡>은 1636년 사행 때 세 사신과 이문학관 권척이 宗義成에게 준 詩箋을 이어붙인 것으로, 그를 해외의 호걸을 추켜 세운 뒤 사행을 성공시킨 공으로 장군으로부터 보검을 받은 것을 축하하며 이별을 아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李明彦筆跡>은 1719년 사행 때 宗義誠이 이별의 기념으로 삼고자 시를 요청하자 읊시 3수에다 지나온 노정에 서 지은 시까지 합쳐 총 10수의 시를 건넨 것을 모은 것이다. 그리고

33) 시·서의 교류는 한태문,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소재 시·서 연구』(『배달말연구』 61집, 배달말학회, 2017)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재정리 하였음을 밝혀둔다.

34) 성종은 1475년 조선통신사를 파견할 때 영의정과 좌의정이 오른팔이 부자연스런 李則과 시에 능하지 않은 서장관 表浴沫을 교체할 것을 청하자 부사는 李命崇, 서장관은 蔡壽로 교체하였다. 또 군관도 武才 외에 詞章을 잘하는 자를 선발할 것을 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진, 『조선전기 한일양국 문인의 시문창화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28, 2001, 132~133쪽 참조.

<朝鮮國三使口占聯句>는 1682년 사행의 삼사가 2대 藩主 德川光友의 접대에 감사하며 즉석에서 한 구씩을 지어 완성한 것으로, 名古屋城을 바라보며 이별을 아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여의 대상이 학자인 <波田崇山朝鮮通信使唱酬詩並筆語>(J.Ⅲ-8)도 있다. 이는 長州藩의 유학자 波田崇山이 1763년 사행의 제술관·서기와 赤間關의 숙소인 阿彌陀寺에서 교류할 때 그들로부터 받은 시와 筆語 총 6점이다. 赤間關에서 博學勤業하는 일본의 수재를 만난 기쁨과 함께 더욱 면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贈與詩의 대상이 사행이 머문 사찰의 주지나 神社의 宮司인 경우도 있는데, 특정 사행에 국한된 단편적인 시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수량도 많은 데다 특정 시기에 구애되지 않는 시도 많다.³⁵⁾ 전자의 예로는 1655년 사행 때 부사 유창이 京都 大佛寺의 위용을 찬탄한 <兪場筆跡>(K.Ⅲ-2), 1711년 사행 때 부사 임수간이 赤間關의 安德祠에서 安德天皇의 죽음을 조문하며 지은 <通信使副使任守幹壇ノ浦懷古詩>(J.Ⅲ-2), 같은 사행 때 종사관 이방언이 귀로에 近江八幡의 金台寺에 들러 이국땅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모두 겪어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朝鮮通信使從事官李邦彥詩書>(J.Ⅲ-5) 등이 있다.

후자의 예로는 소위 조선통신사 관련 대표 유적으로 손꼽히는 韃浦의 福禪寺, 牛窓의 本蓮寺, 靜岡의 淸見寺 등에 소장된 자료들이다. 먼저 <福禪寺對潮樓 朝鮮通信使關係資料>(J.Ⅲ-3)는 1711년 사행 때 삼사의 시 3점과 1747년 사행 때 삼사와 수행원의 시 9수를 하나의 두루마리로 만든 『韓客詞花』를 포함한다. 登高의 흥을 이은 歲暮之情의 토로, 약양루에 비견되는 福禪寺의 빼어난 경치에 대한 찬탄과 감흥을 담고

35) 사찰 소개 시들에 대해서는 한태문의 일련의 성과를 참조할 것. 『淸見寺 소재 시문에 반영된 한일문화교류』, 『조선통신사연구』 3, 2006; 『相國寺 慈照院 소장 『韓客詞章』 연구』, 『일어일문학』 42, 2009; 『福禪寺 소장 통신사 유목 관련 자료 연구』, 『어문연구』 80, 2014.

있다. <本蓮寺朝鮮通信使詩書>(J.Ⅲ-4)는 1643년 사행의 종사관 신유의 <過客爲妙上人題>로부터 1711년 사행의 서기 남성중의 <本蓮寺泣次遺韻>까지 총 8인 9수의 시가 전한다. 대체로 本蓮寺의 경관에 대한 감상과 사행에서 발견한 아버의 필적에 감응하는 자식의 애뜻한 마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淸見寺朝鮮通信使詩書>(J.Ⅲ-6)는 1643년 사행부터 1763년 사행에 이르기까지 사행이 淸見寺에 와서 지은 시서를 망라한 것이다. 淸見寺와 富士山의 풍광에 대한 찬탄, 淸見寺와 조선 洛山寺와의 우호적 비교, 關板主忍을 비롯한 淸見寺 승려와의 인간적인 정감의 교류 등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1636년 사행 때 日光山을 방문한 조선 문사들이 日光山의 풍광을 읊은 시를 수록한 <東照社緣起·中卷>(J.Ⅲ-15)가 있는데, 3대 장군 德川家光의 명으로 日光山 東照社에 봉납되기도 했다. 이밖에 증여대상이 불분명하지만 1811년 사행 때 사자관 피중정이 對馬島에서의 망중환을 읊은 <朝鮮通信使詩稿>(K.Ⅲ-4)도 있다.

둘째, 일본인이 조선통신사에게 증여한 시문으로 <朝鮮通信使奉別詩稿>(K.Ⅲ-16)와 <東槎唱酬集>(K.Ⅲ-23)이 있다. 전자는 1811년 사행 때 대학두 林衡을 수행했던 松崎謙堂과 植木晁이 이별의 아쉬움과 사행의 장쾌한 유람을 축원하며 지은 것이다. 후자는 1763년 사행의 서기 성대중이 사행 도중 京都의 北文彪가 준 시와 岡新田川의 편지글 <奉贈龍淵成公> 등 각 지역의 일본 문사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시문을 일정한 순서없이 모은 것이다.

셋째, 양국 문사가 서로 시문을 주고받은 唱酬詩로 <義軒成夢良筆行書>(K.Ⅲ-21), <朝鮮通信使酬唱詩>(K.Ⅲ-22), <任統詩書>(J.Ⅲ-17)가 있다. <義軒成夢良筆行書>는 1719년 사행 때 서기 성몽량과 일본인 義軒이 서로 같은 韻자를 사용하여 창화한 7언절구 2수로, 두 문사가 양국 태평성세를 서로 공감하며 지음의 경지에 들었음을 보여준다. <朝鮮通

信使酬唱詩>는 1682년 사행의 제술관 성완을 비롯한 조선의 세 문사들이 일본 長門州 萩藩의 서기 山田原欽과 2차례의 모임에서 주고받은 25편의 시를 모은 것이다. 만남의 소망이 실현된 감회와 이국 영재에 대한 조선문사의 찬탄 및 이별의 아쉬움이 잘 드러난다.³⁶⁾ <任統詩書>는 1636년 사행이 佐和山에 머물 때 정사 임광과 彦根藩 軍師 岡本宣就가 주고 받은 시문이다. 임광이 후한 대접에 시로 감사의 뜻을 전하자 岡本이 아름다운 시를 江戸에 있는 藩主에게 빨리 알려줬다고 시로 화답하고 있다.

2) 書畫의 교류

서화의 교류는 전통적으로 서화를 즐기는 일본인의 기호와 ‘서화에 능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막부의 강한 요청, 그리고 서화교류를 담당한 寫字官과 화원의 탁월한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글씨의 경우 대체로 증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먼저 조선 국왕이 일본 최고실권자인 德川將軍家에 증여한 것으로 <朝鮮國王孝宗親筆額字>(J.III-13)가 있다. 이는 1655년 사행 때 조선 효종임금이 자필로 ‘靈山法界崇孝淨院’이라 써서 德川막부의 3대 장군 德川家光을 기리는 사당인 大猷院에 기증한 것이다. ‘靈山法界’는 불법세계로 충만한 신령스런 산, 곧 ‘日光山’을 지칭하고, ‘崇孝淨院’은 할아버지인 德川家康을 위해 東照宮을 화려하게 지은 손자의 효심을 숭상하는 정결한 장소인 ‘大猷院’을 지칭한다.³⁷⁾ 조선통신사가 大名에게 증여한 것으로는 1763년 사행의 정사 조엄이 귀로에 머물 對馬島에서 중국 古詩 등을 다양한 서체로 휘호한 뒤 호화로운 摺帖으로 만들어 전 對馬藩主 宗義蕃에게 선

36) 자세한 내용은 한태문,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한개수창』 연구』, 『향도부산』 33, 2017을 참조할 것.

37) 강남주, 『닛코 방문의 또 다른 뜻은』,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3』, 한울, 2009, 166~167쪽.

물한 <寶曆十四年朝鮮通信使正使趙曦書帖>(J.Ⅲ-16)이 있다. 또 증여 대상이 불분명한 <金義信書帖>(K.Ⅲ-5)은 1655년 사행의 사자관 김의신이 북송의 문인 唐庚이 집안 대대로 전해오던 벼루를 소재로 지은 <古硯銘>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다. 종사관 남용익이 “鍾繇와 王羲之의 필법에 柳公權과 顏真卿의 근골을 가미했다.”³⁸⁾고 평가할 정도로 두터운 골격과 생동감 넘치는 필세가 특징이다.

다음은 현판에 사용할 글씨, 곧 額字 형식의 글씨도 있다. 앞서 시문에서 언급한 1655년 사행의 부사 유창의 <兪瑒筆跡>(K.Ⅲ-2)에도 ‘孝弟忠信’이란 글씨가 있고, <福禪寺對潮樓 朝鮮通信使關係資料>(J.Ⅲ-3)에도 1711년 사행의 종사관 이방언이 휘호한 ‘日東第一形勝’과 1747년 사행 때 자제군관 홍경해가 휘호한 ‘對潮樓’ 글씨가 전한다. 또 <秦東益筆行書>(K.Ⅲ-6)는 1811년 사행의 통사 진동익이 ‘靜觀’이라 쓴 것으로, 북송의 유학자가 程顥가 지은 <秋日偶成> 가운데 ‘萬物靜觀皆自得’에서 따온 것이다.

그림은 크게 초상·인물화, 花鳥·翎毛畫, 산수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한국측의 ‘초상·인물화’는 1643년 사행 때 화원 김명국이 그린 <達磨折蘆渡江圖>(K.Ⅲ-7)와 막부 어용화가 狩野常信이 그린 <趙泰億像>(K.Ⅲ-17)이 있다. 전자는 중국 선종의 開祖인 보디달마가 갈대를 꺾어 양자강을 건넜다는 전설을 담은 것으로, 바람에 날리는 옷자락과 고행을 상징하는 맨 발을 통해 중생구제의 강한 일념을 보여 준다. 후자는 1711년 사행의 정사 趙泰億을 그린 것으로, 사행이 江戸에 머물고 있을 때 關白이 狩野常信을 보내어 세 사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여³⁹⁾ 탄생한 작품이다. 관복을 입은 단아한 자태로 정사의 위엄이 느껴지는 것

38) 남용익, 『부상록』, 1655년 8월 20일, “兩斯文疊次城字韻至十五首率牽走和, 憐渠八法逼鍾王 柳骨顏筋眼底平”.

39) 김현문, 『동사록』, 1711년 11월 10일. “關白送畫師年老耆來謁三使前 皆出於爲使臣畫像之意云”.

이 특징이다. 일본측의 ‘초상·인물화’는 1636년 사행 때 그린 <拾得圖>(J.Ⅲ-7)와 <壽老人圖>(J.Ⅲ-11)가 있다. 전자는 禪僧이자 시인이었던 당나라 천태산 국청사의 스님 拾得을 그린 것이다. 拾得이 절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주지가 갑자기 자신의姓과 거주지를 묻자, 청소를 멈추고 두 손을 빗자루 위에 교차한 채 말이 없었다는 고사를 형상화하였다. 후자는 중국의 仙人으로 長身·長頭에 壽·福·德을 모두 갖추어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림 소재가 된 壽老人을 그린 것이다. 100여 년 후 佐賀藩의 유학자 古賀精里가 이 그림 위에 贊을 써 넣음으로써⁴⁰⁾ 조선 화가와 일본 문사의 시대를 뛰어넘은 感應을 엿보게 한다.

‘화조·영모화’는 크게 꽃을 중심으로 그린 것, 꽃과 나비·새를 그린 것, 나무와 호랑이를 그린 것으로 나뉜다. 먼저 꽃을 그린 <墨梅圖>(K.Ⅲ-8)는 1763년 사행의 기선장이자 동래부 在地畫師 변박이 그린 것이다. 상단 오른쪽에 題畫詩를 덧붙였는데, 절개와 지조의 상징인 매화를 부귀와 공명의 상징인 모란과 대비시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고결한 성정을 담고 있다. 꽃과 나비를 그린 <石蘭圖>(K.Ⅲ-9)는 1763년 사행의 화원 김유성이 그린 것으로, 기암괴석이 부각되는 보통의 그림과 달리 가늘고 곧게 뻗은 난초와 나비의 호응이 오히려 더 정겹게 묘사된 그림이다.

꽃과 새를 그린 화조도는 1811년 사행의 화원인 이의양의 <花鳥圖>(K.Ⅲ-14)·<鷹圖>(K.Ⅲ-10)와 동래부 재지화사 이시눌의 <花鳥圖>(K.Ⅲ-15)가 있다.⁴¹⁾ 이의양의 <花鳥圖>는 비단 바탕에 그린 현존 유일의 眞彩畫로, 짙붉은 꽃과 함께 가지 위로 떨어지는 듯한 역동적인 새의 모

40) 古賀精里는 1811년 사행의 화원 이의양이 그린 <江南雨後圖>에도 贊을 남겼다. 大澤研一, 『大阪歴史博物館 소장의 통신사 자료: 신기수 컬렉션』,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 문화유산’ 등재』, 경인문화사, 2018, 161쪽.

41) 1811년 사행 그림 속에 많이 등장하는 ‘松菴’과 ‘槐園’이란 호의 당사자는 당시 동래부 武廳 소속의 在地畫師 ‘李時訥’과 ‘卞持漢’으로 밝혀졌다. 이현주,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화원 연구』, 해성, 2016.

습이 인상적이다. <鷹圖>는 武를 숭상하는 일본인의 취향에 맞추어 그린 것으로, 상단 오른쪽의 題畫詩에는 저녁이 되어 구름 너머 먼 길을 떠날 수 없는 때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시눌의 <花鳥圖>는 가지 꺾어진 늙은 홍매 위에 강남에서 돌아온 제비들이 짝을 지어 활기차게 날아올라 생동감이 느껴진다. 이는 특히 일본의 求請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당시 부산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졌던 회화교류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변박이 그린 <松下虎圖>(J.Ⅲ-12)도 있는데, 사행이 귀로에 相模國 大磯에서 설 때 그린 것으로 조선민화풍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수화’는 1682년 사행 때 일본 화가 狩野清眞이 그린 <瀟湘八景圖卷>(J.Ⅲ-10)과 1811년 사행 때 화원 이시눌의 <山水圖>(K.Ⅲ-13) 및 이의양의 <山水圖>(K.Ⅲ-11~12)가 있다. <瀟湘八景圖卷>은 중국 동정호 남쪽에 있는 瀟水와 湘江의 아름다운 八景을 그린 것으로, 운곽선이 없이 먹 면을 넓게 하거나 먹의 흘날림을 이용한 힘있는 풍경이 특징이다. 이시눌의 <산수도>는 수출화의 형태인 求買品이거나 사행 화원이 가지고 간 齋去品으로 투박한 인물형상이 특징이다. 이의양의 <산수도> 2점은 하나는 주산의 능선이 흘러내리듯 펼쳐진 가운데 지팡이를 든 인물과 그를 따르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봉래산 뒤에 富士山이 실루엣풍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특히 이들은 모두 ‘倣谷文晁畫’라 적어 일본 南畫의 대가 谷文晁의 그림을 모방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谷文晁도 중국 화가 董苑의 산수화를 본뜬 <倣董北苑筆意山水圖>를 남기고 있어 한중일의 회화교류 및 영향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본의 막부가 어용화가를 고용해 그린 뒤 조선 국왕에게 병풍으로 증정한⁴²⁾ 것도 있다. <芙蓉雁圖屏風>(K.Ⅲ-18)은 狩野宴信이 그린 障壁畫의 일종으로 2점 6폭이며 금박 바탕에 기러기와 부용이 어

42) 上田正昭·辛基秀·仲尾宏, 『朝鮮通信使とその時代』, 明石書店, 2001, 256~259쪽.

우러진 풍경을 담고 있다. 특히 각각 우측 상단에 1751년 봄, 영조가 예전에 받았던 병풍을 펼쳐본 뒤 감상을 적은 <御製筆>도 전한다. <源氏物語團扇屏風>(K.Ⅲ-19)은 大坂 출신 화가 長谷川光信이 부채 그림으로 만든 2폭의 가리개로 일본 平安시대 소설 『源氏物語』 12장면을 담고 있다. 그리고 <牧丹圖屏風>(K.Ⅲ-20)은 1763년 사행 때 狩野師信이 그려 사행을 통해 조선국왕에게 전달된 것이다. 금박 바탕에 붉고 흰 모란이 물 흐르는 냇가 근처에 괴석과 함께 어우러져 전형적인 일본 장벽화 풍을 보여준다.

이밖에 시문·서화는 물론 개인의 저서까지 포함된 개인 관련 자료 전체가 등재된 <雨森芳洲關係資料>(J.Ⅲ-1)도 있다. 이는 對馬藩의 眞文役을 맡아 조선과의 외교에 힘쓴 雨森芳洲(1668~1755)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모은 것이다. 그는 외교의 기본이 ‘誠信交隣’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1711·1719년 사행을 수행하여 조선의 문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펼친 인물이다. 이 자료에는 1711년 사행의 제술관 이현이 지은 <李東郭七律>·<遊仙詩>를 비롯하여 <誠信堂記>를 비롯한 시문, 조선외교 지침서인 『交隣提醒』, 일본 최초 조선어학서인 『全一道人』, 1711년 사행과 일본 문사 간의 필담창화집인 『縞紵風雅集·同附集』·『韓客唱和集』·『京都唱酬』 등 雨森芳洲가 짓거나 편찬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문화교류의 기록’은 조선통신사가 양국의 우호관계 구축 및 학문과 문화발전에 기여한 바를 증명하고 있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새롭게 등재된 ‘조선통신

사에 관한 기록-17~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의 등재 과정과 기록물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재과정을 살폈다. 등재 과정은 공동 등재 추진을 합의한 2014년 3월 4일 이전과 이후의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합의 이전에는 학계의 연구와 민간단체의 선양활동 및 심포지엄을 통한 등재 가능성 점검이, 합의 이후에는 양국 공동학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상 자료의 선정부터 신청서 제출 및 홍보가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둘째, 자료의 현황과 특징을 살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크게 ‘외교 기록’(5건 51점)·‘여정의 기록’(65건 136점)·‘문화교류의 기록’(41건 146점)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 기록들은 전쟁을 겪은 朝日 양국이 ‘通信’으로 대표되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솔한 정감을 나누고 관심사를 주고 받은 ‘誠信交隣’의 결과물이었다. 나아가 조선통신사를 통한 상호 교류가 교류 당사자인 개인 상호간의 신뢰와 우의는 물론 양국의 우호 관계 구축과 문화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양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증명된 평화적·지적 유산인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오늘날 항구적인 평화공존과 이문화 존중을 지향해야 할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創業보다 守城이 어렵듯 그토록 기다리던 등재가 확정된 지금은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이 향후 최대 과제로 남는다.⁴³⁾ 양국에 각각 산재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은 현

4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참고가 될 수 있다. 김귀배,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 문화유산’ 등재』, 경인문화사, 2018, 207~236쪽. 『한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소장 기관 실무자 워크숍 자료집』, 한국국학진흥원, 2017.

지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양국의 문화재 보호제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관련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온라인 상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기록물 한일 공동운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신청 주체였던 두 민간단체를 비롯하여 기록물 소장처, 조선통신사 연고지자체, 문화재청 등이 참여하여 이후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 홍보 및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공동 협의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저서

- 김태준, 『조선한문학사』, 조선어문학회, 1931.
- 上田正昭·辛基秀·仲尾宏, 『朝鮮通信使とその時代』, 明石書店, 2001.
- 심규선, 『심규선 기자가 전하는 조선통신사, 한국 속 오늘』, 월인, 2017.
- 雨森芳洲, 『縞紵風雅集 雨森芳洲全書一』, 關西大學出版弘報部, 1979.
- 이현주,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화원 연구』, 해성, 2016.
- 林煒, 『通航一覽』 권108.
- (재)민족문화추진회, 『신편 국역 예조 전책사 변례집요』, 한국학술정보, 2006.
- 조규익·정영문 편,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학고방, 2008.
-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편,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1~3, 한울, 2007.
- 仲尾宏·町田一仁 편, 『ユネスコ世界記録遺産と朝鮮通信使』, 明石書店, 2017.
- 한일문화교류기금 편,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 문화유산’ 등재』, 경인문화사, 2018.
- 한태문, 『조선통신사의 길에서 오늘을 묻다』, 경진, 2012.
- 허경진, 『통신사 필담창화집 문화연구』, 보고사, 2011.
- 허경진 외, 『조선후기 통신사 필담창화집 번역총서』, 보고사, 2013.
- 홍선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의 1711년 조선통신사 행렬도」, 『조선시대 통신사 행렬』,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2005.

2. 논문

- 김동철, 「통신사 수행 마상재의 구성과 활동」, 『조선통신사연구』 3호, 조선통신사학회, 2006.
- 김성진, 「조선전기 한일양국 문인의 시문창화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28집, 한국문학회, 2001.
- Margit Siim, 「발틱웨이 기록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과정과 내용 및 발트 3국간 국제협력과 추진체계」, 『조선통신사연구』 15호, 조선통신사학회, 2012.
- 송진충, 「寫字官 雪峯 金義信의 生涯와 書風」, 『미술사학』 34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7.
- 이와가타 히사히코, 「조선통신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지역과 역사』 38집, 부경역사연구소, 2016, 114쪽.
- 村上和弘, 「對馬・嚴原‘通信使行列’パレード」, 『2018 조선통신사학회 춘계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8.
- 倉地克直, 「朝鮮通信使と牛窓」, 『牛窓町史 通史編』, 牛窓町, 2002.
- 村上和弘, 「對馬・嚴原‘通信使行列’パレード; その誕生と変容」, 『2018 조선통신사학회 춘계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8.
- 한태문, 「통신사 왕래를 통한 한일문화교류」, 『한국문학논총』 41집, 한국문학회, 2005.
- _____, 「淸見寺 所載 詩文에 반영된 韓日文化交流」, 『조선통신사연구』 3호, 조선통신사학회, 2006.
- _____, 「福禪寺 소장 通信使 遺墨 관련 자료 연구」, 『어문연구』 80집, 어문연구학회, 2014.
- _____,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韓客酬唱』 연구」, 『항도부산』 33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7.
- _____,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소재 시·서 연구」, 『배달말』 61집, 배달말학회, 2017.

3. 기본자료 · 인터넷 · 영상자료

林煒, 『通航一覽』 권108.

『增正交隣志』

『해행총재』 소재 조선통신사 사행록 및 기타 사행록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 추진경과보고회 자료집』, 부산 문화재단·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2015.12.8.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신청서 조인식』 자료집, 부산문화 재단·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2016.1.29.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유네스코 홈페이지(<https://en.unesco.org>)

KBS TV,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 특집 조선통신사>(2017.3.14.)

NHK TV, <平和の使節を“世界の記憶”に, 朝鮮通信使登録への道>(2018.1.21.)

투고일 : 2018. 06. 11. 심사완료일 : 2018. 07. 04. 게재확정일 : 2018. 07. 18.

<별첨자료>

<한국 측 등재 목록>(총 63건 124점)

I. 외교기록 (2건 32점)

NO	건 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1	通信使謄錄		禮曹	1641-1811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2	邊例集要		禮曹 典客司	1841 以後	18	서울대학교 규장각

II. 여정의 기록 (38건 67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1	慶七松海槎錄	1607	慶暹	1607	1	국립중앙도서관
2	吳秋灘東槎上日記	1617	吳允謙	1617	1	국립중앙도서관
3	李石門扶桑錄	1617	李景稷	1617	1	국립중앙도서관
4	東槎日記	1617	朴梓	1617	1	서울대학교 규장각
5	姜弘重東槎錄	1624	姜弘重	1624	1	국립중앙도서관
6	任叅判丙子日本日記	1636	任統	1636	1	국립중앙도서관
7	金東溟海槎錄上·下	1636	金世濂	1636	2	국립중앙도서관
8	金東溟槎上錄	1636	金世濂	1636	1	국립중앙도서관
9	黃漫浪東槎錄	1636	黃屛	1636	1	국립중앙도서관
10	趙龍洲東槎錄 申竹堂海槎錄上	1643 1643	趙綱 申濡	1643 1643	1	국립중앙도서관
11	申竹堂海槎錄 癸未東槎日記	1643 1643	申濡 작자미상	1643 1643	1	국립중앙도서관
12	南壺谷扶桑錄上·下	1655	南龍翼	1655	2	국립중앙도서관
13	南壺谷聞見別錄	1655	南龍翼	1655	1	국립중앙도서관
14	洪譯士東槎錄	1682	洪禹載	1682	1	국립중앙도서관
15	金譯士東槎日錄	1682	金指南	1682	1	국립중앙도서관
16	申靑川海遊錄上·中·下	1719~20	申維翰	1719	3	국립중앙도서관
17	扶桑錄	1719~20	金滄	1719	2	국립중앙도서관
18	隨槎日錄	1747~48	洪景海	1747	2	서울대학교 규장각
19	奉使日本時間見錄	1747~48	曹命采	1748	2	서울대학교 규장각
20	趙濟谷海槎日記一~五	1763~64	趙曠	1763	5	국립중앙도서관
21	日觀記	1763~64	南玉	1763	4	국사편찬위원회
22	日觀唱酬	1763~64	南玉	1763	2	국립중앙도서관
23	日觀詩草	1763~64	南玉	1763	2	국립중앙도서관
24	日本錄	1763~64	成大中	1763	2	고려대도서관
25	乘槎錄	1763~64	元重舉	1763	5	고려대도서관

26	棧錄	1763~64	閔惠洙	1763	1	고려대도서관
27	溟棧錄	1763~64	吳大齡	1763	1	국립중앙도서관
28	癸未隨棧錄	1763~64	卞琢	1763	1	국립중앙도서관
29	日東壯遊歌	1763~64	金仁謙	1763	4	서울대학교 규장각
30	辛未通信日錄	1811	金履喬	1811	3	충남역사박물관
31	淸山島遊錄	1811	金善臣	1811	1	국립중앙도서관
32	東棧錄	1811	柳相弼	1811	1	고려대도서관
33	仁祖2年通信使行列圖	1624	작자미상	1624	1	국립중앙도서관
34	仁祖4年通信使入江戶城圖	1636	작자미상	1636	1	국립중앙박물관
35	肅宗37年通信使行列圖	1711	倭喜左衛門	1711	4	국사편찬위원회
36	棧路勝區圖	1748	李聖麟	1748	1	국립중앙박물관
37	倭館圖	1783	卞璞	1783	1	국립중앙박물관
38	國書樓齋圖	미상	작자미상	미상	1	국립중앙박물관

III. 문화교류의 기록 (23건 25점)

NO	건명	사행연대	제작자	제작연대	수량	소장처
1	金世濂等筆跡(詩)	1636	金世濂 외	1636	1	국사편찬위원회
2	俞瑒筆跡(詩)	1655	俞瑒	1655	1	국사편찬위원회
3	李明彦筆跡(詩)	1719~20	李明彦	1719	1	국사편찬위원회
4	朝鮮通信使詩稿	1811	皮宗鼎	1811	1	국립해양박물관
5	金義信書帖	1655	金義信	17세기	1	부산박물관
6	秦東益筆行書	1811	秦東益	19세기	1	부산박물관
7	達磨折蘆渡江圖	1636	金明國	1640년대	1	국립중앙박물관
8	墨梅圖	1763~64	卞璞	1764	1	부산박물관
9	石蘭圖	1763~64	金有聲	1764	1	부산박물관
10	鷹圖	1811	李義養	1811	1	부산박물관
11	山水圖	1811	李義養	1811	1	부산박물관
12	山水圖	1811	李義養	1811	1	부산박물관
13	山水圖	1811	松菴	1811	1	부산박물관
14	花鳥圖	1811	李義養	1811	1	국립해양박물관
15	花鳥圖	1811	槐園	1811	1	부산박물관
16	朝鮮通信使奉別詩稿	1811	松崎謙堂 외	1811	1	국립해양박물관
17	趙泰憶像	1711	狩野常信	1711	1	국립중앙박물관
18	芙蓉雁圖屏風 1雙	1747~48	狩野宴信	1748	2	국립고궁박물관
19	源氏物語團扇屏風	18세기	長谷川光信	18세기	1	국립고궁박물관
20	牡丹圖屏風	1811	狩野師信	1762	1	국립고궁박물관
21	義軒 成夢良筆行書	1719~20	義軒, 成夢良	18세기	1	부산박물관
22	朝鮮通信使 酬唱詩	1682	山田復軒 외	1683	1	국립해양박물관
23	東槎唱酬集	1763~64	成大中 외	1764	2	국립중앙도서관

<일본 측 등재 신청 목록>(총 48건 209점)

I. 외교기록 (3건 19점)

■중요문화재 ○縣지정문화재 ●市지정문화재 ○町지정문화재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朝鮮國書	1607/1617	對馬藩作成	1607/1617	3	京都大學總合博物館	■
2	正徳元年 朝鮮通信使進物目錄 毛利吉元宛	1711	通信使	1711	1	山口縣立山口博物館	■
3	朝鮮國書	1617~1811	對馬藩作成 朝鮮王朝	1617~1811	15	東京國立博物館	■

II. 여정의 기록 (27건 69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朝鮮信使御記錄	1711	長州藩	1711·12	13	山口縣文書館	
2	福岡藩朝鮮通信使進物目錄	1763~64	福岡藩	1763·64	15	福岡縣立圖書館	
3	甲申韓人來聘記事	1763~64	尾張藩 (松平君山)	1764	1	名古屋市蓬左文庫	
4	小倉藩朝鮮通信使 對馬易地聘禮記錄 (對州御下向録陸日記 외)	1811	小倉藩	1811	6	福岡縣立育徳館高校 錦陵同窓會 みやこ町歴史民俗 博物館寄託	○
5	朝鮮通信使迎接 所繪圖(土肥家文書)			18世紀	1	土肥純子(個人)	●
6	江洲藩往郡御禮繪圖			1700頃	1	近江八幡市圖書館	●
7	正徳度朝鮮通信使 行列圖卷	1711	對馬藩 (侯喜左衛門)	1711	3	大阪歴史博物館	
8	朝鮮信使參着歸路 行列圖	1711	對馬藩 (侯喜左衛門 외)	1711	4	(公財)高麗美術館	
9	宗對馬守護行歸路 行列圖	1711	對馬藩 (侯喜左衛門 외)	1711	4	(公財)高麗美術館	
10	延享五年朝鮮通信使 登城行列圖	1747~48	郡司某	1748	1	下關市立長府博物館	
11	朝鮮國信使繪卷 (上下卷)		對馬藩	寛永~ 寶曆度	2	長崎縣立 對馬歷史民俗學館	○
12	朝鮮國信使繪卷 (化度)		對馬藩	19世紀	1	長崎縣立 對馬歷史民俗學館	○
13	天和度朝鮮通信使 登城行列圖屏風	1682		17世紀	1	大阪歴史博物館	

14	朝鮮人來朝覺備前御馳走船行列圖	1748		1748	1	吳市(公財)松濤園管理	●
15	朝鮮通言遊在川掛船圖	1763~64		18世紀	1	超專寺	○
16	正徳度朝鮮通言使國書先導船圖屏風	1711		1711頃	1	大阪歴史博物館	
17	正徳度朝鮮通信使上上管第二船圖・同塙圖	1711		1712	2	大阪歴史博物館	
18	朝鮮通言遊在川掛船圖屏風			18世紀	1	大阪歴史博物館	
19	朝鮮人物旗幟輿之圖	1811	猪飼正毅	19世紀	1	名古屋市蓬左文庫	
20	七五三盛付線出順之繪圖		對馬藩	18世紀	1	長崎縣立對馬歴史民俗資料館	
21	朝鮮人御饗應七五三膳部圖	1811	猪飼正毅	19世紀	1	名古屋市蓬左文庫	
22	馬上才圖卷		廣渡雪之進	18世紀	1	松原一征對馬歴史民俗資料館寄託	●
23	馬上才圖		二代目鳥居清信	18世紀	1	(公財)高麗美術館	
24	琵琶湖圖		円山應震	1824	1	滋賀縣琵琶湖文化館	
25	朝鮮通信使小童圖	1711	英一蝶	18世紀	1	大阪歴史博物館	
26	釜山浦富士圖		狩野典信	18世紀	1	大阪歴史博物館	
27	朝鮮通信使歡待圖屏風	1655	狩野益信	17世紀	2	泉湧寺	●

III. 문화교류의 기록 (18건 121점)

NO	건명	사행연도	제작자	제작연도	수량	소장처	비고
1	雨森芳洲關係資料	1711 1719	雨森芳洲 외	18世紀	36	芳洲會 高麗觀音の歴史 民俗資料館寄託	■
2	通信副使任守幹壇浦懷古詩	1711	任守幹	1711	1	赤間神宮	●
3	福禪寺對潮樓朝鮮通信使關係資料	1711 1747~48	趙泰億 李邦彦 洪啓禧 외	1711 1747·48	6	福禪寺 福山市鞆の浦歴史 民俗資料館寄託	●
4	本蓮寺朝鮮通信使詩書	1643 1655 1711	申濡 朴安期 趙珩 외	1643 1655 1711	9	本蓮寺 岡山縣立 博物館寄託	●
5	朝鮮通信使從事官李邦彦詩書	1711	李邦彦	1711	1	本願寺八幡別院	●
6	清見寺朝鮮通言遊書	1643 등	朴安期 외	1643ほか	48	清見寺	
7	金明國筆拾得圖	1636or43	金明國	1636or43	1	下關市立長府藝術館	

8	波田嵩山廟諭通信使 唱酬詩並筆語	1763·64	南玉 成大中 元重舉	1763·64	6	波田兼昭 下關市立長府 博物館寄託	
9	韓客詞章	1711	趙泰億 외	1711	4	相國寺慈照院	
10	瀟相八景圖卷	1682	狩野清真畫 李鵬溟贊	1682	1	大阪歷史博物館	
11	壽老人圖	1636	荷潭畫 古賀精里贊	1636	1	大阪歷史博物館	
12	松下虎圖	1763·64	卞璞	1764	1	大阪歷史博物館	
13	朝鮮國王孝宗 親筆額字	1655	孝宗	1655	1	日光山輪王寺	◎
14	東照社緣起(假名本) 5卷 중 第4卷	1636	狩野探幽 외	1640	1	日光東照宮	■
15	東照社緣起(眞名本) 3卷 중 中卷	1636	親王·公家	1640	1	日光東照宮	■
16	寶曆十四年通信 正使趙巖書帖	1763·64	趙巖	1764	1	下關市立長府 博物館	
17	彦根藩岡本半介筆錄 任統謝詩並岡本半 介唱酬詩	1636	岡本半介	1637	1	大阪歷史博物館	
18	朝鮮國三使 口占聯句	1682	尹趾完 李彥綱 朴慶後	1682	1	名古屋市 蓬左文庫	

| Abstract |

A Study on the Registration process and status of ‘Documents on Joseon Tongsinsa’, a UNESCO Memory of the World

Han, Tai-Moon

This paper reconfigures the process, status, features of the documents of Joseon Tongsinsa, which was newly listed as a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2017.

First, we looked at the registration process. The registration process is divided into activities before and after March 4, 2014, which agreed to promote joint listing. Prior to the consensu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cademia researches, enlightenment activities and symposiums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after the consensus, application documents were submitted and promoted from the selection of the target data centered on the joint academic committees of the two countries.

Second, we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ata. The documents of Joseon Tongsinsa classified as ‘Diplomatic Records’(5 items 51 points), ‘Journey Records’(65 items 136 points) and ‘Cultural Exchange Records’(41 items 146 points) Based on the mutual trust represented by ‘trust’ and shared a sense of honest feelings and exchanged ‘interests’ was the result of ‘Sincinnity’.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mutual exchange through the documents of Joseon Tongsinsa was the material that proved that it contributed greatly to the mutual trust and friendship between the parties of the exchange as well as the friendship relationship and cultural develop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is way, the documents of Joseon Tongsinsa can provide wisdom to solve the common problems of humanity that should aim for permanent peaceful coexistence and respect for interculturalism with the peaceful and intellectual heritage proven by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both countries.

Key words: UNESCO Memory of the World, Documents on *Joseon Tongsinsa*, Registration process, diplomatic documents, travel records, cultural exchange records

